조계종 3원 통합 방향, '효율·기능 강화' 방점

중앙종회 미래특위 3차 회의…조직개편 필요성 부각

의견수렴 위한 기초안 성안
교육원·포교원 종헌서 삭제
사문화된 조항 일부 수정도
소임자·원로 찾아 소통키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시대변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통합을 추진하는 조계종이 조직개편의 초점을 업무 효율성과 기능성 강화에 맞췄다. 이를 위해 종헌개정안 초안을 성안하고, 본격적인 종도 의견수렴에 나선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미래특위)는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무기관 통합을 위한 종헌개정안 초안을 성안했다. 초안은 종헌에 명시된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사회복지원장 직위를 비롯해 교육원·포교원이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종헌기구가 아닌 종법기구로 격을 낮추면서 기존 업무는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한 것. 여기에 부칙으로 종헌 시행을 2025년 4월 1일로 정해 유예기간 동안 관련 종법을 손본다는 취지다.

회의에선 종도들이 종헌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공유도 이뤄졌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조직개편 배경으로 현재 조직구조의 비효율·비체계·비시대적 문제를 꼽았다. 스님에 따르면 교육·포교원 별원 체제에서 인사와 재정, 입법체청 등의 역할이 총무원으로 집중되면서 별원의 위상과 의미가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총무부의 승적·수계·법계 분야와 교육원의 교육·연수 분야가 분산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재무부와 문화부 역시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관리에서 교집합 영역이 발생한다.

우봉 스님은 "각 부서별 기능 분리로 인해 세무, 국고, 대사회, 문화 및 콘텐츠, 대정부 정책 등 시대변화에 대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다"며 "각종 위원회의 난립 등으로 관련 정책을 위한 통합적 내용 수립도 순조롭지 않다"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헌개정 이후 조직개편은 기능별·분야별·유사성 등을 고려해 부서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서 명칭은 종법개정안을 마련하며 정리할 예정이지만 행정·문화포교·교무·대사회·자산활용·기타 분야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우봉 스님의 설명에 대부분의 위원들은 공감을 표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원과 포교원, 미래본부에 설치된 각 연구소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장을 역임한 진각 스님은 "각 연구소 인원과 예산도 제한적이고, 현 총무원장스님이 교육원장으로 계실 때도 고민하셨던 부분"이라며 "기획실과 논의해 이 부분도 같이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미래특위는 교육원과 포교원을 삭제한 종헌개정안에 현재 사문화된 내용도 함께 수정하기로 했다. 승려노후복지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승려노후복지기관으로, 불교사회복지원은 불교사회복지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미래특위는 오는 3월 개원하는 중앙종회 임시회 종헌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종도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초안을 바탕으로 원로회의, 중앙종회 의장단, 5원장, 종책모임, 본사주지 등과 이른 시일 내에 소통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제15기 교육위원장에 금강 스님

교육원, 1월 31일 위촉식 개최
장학위원 성화 · 원명 스님 위촉


교육위원 금강 스님(사진 왼쪽)이 범해 스님에게 위촉장을 받고 있다.

조계종 승가교육 자문기구인 조계종 제15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범해 스님)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5기 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교육위원은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덕현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 △고운사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덕 스님 △통도사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송광사승가대학장 연각 스님 △운문사승가대학장 영덕 스님 △김종욱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장 등 9명이다. 임기는 2026년 1월 30일까지 2년간.

위촉식 직후 교육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금강 스님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지난 14기에 이어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금강 스님은 "교육원의 종책 방향을 자문하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출가자 감소로 인해 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면서 "종단 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스님들이 다양한 의견들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7기 장학위원회 신규위원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을 위촉했다.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합류했다. 신규위원 임기는 제7기 장학위원회 위원 잔여임기를 승계해 오는 10월 6일까지다.

신중일 · 김내영 기자

동국대-중앙승가대 통합 '없던 일로'

동국대와 논의 진전 없어, 3월 중 자구책 수립

1월 29일 제135차 이사회서
양측 모두 통합 부정적 기류

재정위기를 겪으며 지난해 11월 동국대와 통합 논의에 나서기로 한 중앙승가대가 통합 대신 자구책을 다시 모색키로 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5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결의한 동국대와의 통폐합 논의의 건을 사실상 없던 일로 결정했다. 대신 조계종 교육원과 학교 교원,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중앙승가대에 따르면 얼마 전 구성된 새 TF가 3월 말까지 자구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회의에서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의 통폐합 논의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지난해 6개월 회의 끝에 동국대와 통폐합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동국대 측도 뜻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학교를 어떻게 되살릴지 방안을 다시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승가대는 지난 이사회 결의 이후 3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동국대에 구체적인 통폐합 논의 제안을 하지 않았다. 동국대 역시 지난해 11월 자승 대종사의 생전 마지막 간담회에서 중앙승가대 합병 시 연간 80~1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양측 모두 통폐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승가학원 이사장 진우 스님은 "지난 이사회서도 통폐합 논의는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앞서 총장스님께도 몇 번에 걸쳐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기본교육기관 조정이나 행자교육원 설치 등 교육원과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회에서 이사진이 회의하는 모습.

이에 월우 스님은 "총무원 기획실과 총무부, 교수, 동문회 등이 모여 이미 두 번의 회의를 마쳤다. 3월 말까지는 자구책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사회는 이날 △2023회계연도 법인 및 대학 추가경정예산 심의의 건 △2024회계연도 법인 및 대학 예산 심의의 건 △임원 선임의 건 △정관 및 정관시행규정 변경의 건 △교원 신규임용의 건을 처리했다. 절차상 하자로 취임이 반려된 당연직 개방이사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을 재추천했으며, 교육경력 일반이사 혜도 스님 후임으로는 정완 스님을 선출했다. 또한 신규 교원으로 불교학부 불교학·역경학전공에 향산 스님, 불교사회학부 사회복지학전공에 김정희 교수를 임용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 구성

1차 워크숍…시각 스님 "대의기구 사명 다하자"

태고종 제16대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상임분과위원이 확정됐다.

태고종 제16대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는 1월 29~30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1차 워크숍을 갖고 상임분과위 배정을 마쳤다.〈사진〉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향후 종정감사 일정 및 계획을 확정해 실시키로 했다.

각 상임분과위원장으로는 △총무분과위원장 원일 스님(향림사) △교육분과위원장 승윤 스님(옥정사) △문사분과위원장 정광 스님(문수암) △재경분과위원장 지공 스님(도선사) △법사분과위원장 지관 스님(태곡사)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입재식 개회사를 통해 대의기구로서 중앙종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각 스님은 "제16대 중앙종회에 보내는 종단과 종도들의 기대는 더욱 그 깊이와 무게가 크고 넓다"면서 "종도의 권익을 향상하고 보장하는 종도 대의기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재식에 특별히 참석한 원로회의 의장 도광 스님은 격려사에서 '욕궁천리목(欲窮千里目) 경상일층누(更上一層樓), 천리를 내다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다시 또 누각의 한층을 올라서다'는 글을 인용한 후 "치열한 검증과 만법을 아우르는 포용심으로 후대에 길이 본보기가 될 전범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오늘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이 향후 태고종 후학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4년 1월 8일 ~ 2월 28일
■ 개 강 | 2024년 3월 첫째주 3월 4일 (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향 천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